

도약의 달  
선교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성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14:1)

“새기야 사방에서 와서... 붙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에스겔 37:9

새로운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

성 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 예 배 WORSHIP

August 22,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사역과 행사 찬 양 /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예배기도 / 최내권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헌신과 나눔	찬 양 /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봉 헌 / 오정은 집사, 박진성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 348장)
말씀과 결단	찬 송 / 449장 - 예수 따라가며 (통일찬송 377장) 성경말씀 / 요나 1:1-2 하나님의 종이란?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삶과 세상으로	찬 양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에베소서 3:7-9

복음을 위한 바울의 삶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역 / 행사

8월은 “도약의 달”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처럼 날아 오릅니다.

- 2021 년 표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주제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
- 선교주간** 한 주간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사, 성도와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합시다!
- 중고등부 수련회** 어제 토요일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다음 토요일에도 진행됩니다. 수고한 사역자들과 학부모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여한 학생들의 신앙성장을 위해 기도합시다.
- 자녀를 위한 기도** 개학하는 자녀들의 학업과 신앙 교육을 위해,  
특히 2세 사역자 청빙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성경 읽기** 교회 웹사이트에 매주 성경읽기/문제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성경공부/박진성 집사, 웹사이트) 말씀 공부에 힘 더욱 씁시다.
- 토요새벽 기도** 토요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합시다.
- 주일 QT 나눔/기도 모임** 오늘부터 오전 10:15에 모입니다.  
(인도: 장영헌 전도사)
- 사역 정상화** 예배, 성경공부, 새벽기도, Oikos 셀 사역, 중고등부 사역, 선교등 사역이 정상화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합시다. 새 사역지를 찾는데 힘을 모읍시다.
- 교우 동정** 흥현근/정임 집사 가정,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한 출타

8월의 사역 - 선교 주간(22-28) 선교 주일(29)

♥8월 생애축하♥ 최성주(16) 김신실(18) 정줄리(30)

### 기도 제목

-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 예배 섬김이

주일에배기도	8/15	8/22	8/29	9/5
	최선운집사	최내권집사	구 민집사	장영헌전도사
주일헌금위원	8/15	8/22	8/29	9/5
	박진성집사/오정은집사		최내권집사/홍정임집사	
주일안내위원	8월			9월
	구 민집사			김훈태집사

## 말씀노트

###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 / 아모스 9:8-15**

하나님은 유다의 드고야의 양치기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번영하던 이스라엘로 보내셨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재앙을 반복해서 선포했지만, 그의 사역은 축복의 메시지로 종결된다. 하나님은 다섯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다. 다윗의 무너진 천막은 재건된다. 만국 백성이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된다. 백성들은 물질과 영적인 축복을 경험한다. 포로생활에서 풀려나 자유를 누린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공의로운 심판을 직면한 이스라엘이었으나 회복과 축복이 약속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파기한 언약을 회복시키신다. 이스라엘은 삶에서 승리, 기업으로 귀환과 영원한 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후 에스더 시대의 승리, 고레스 시대의 귀환, 초림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처럼, 아모스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완성될 것이다. 따라서, 사탄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인내해야 한다. 고난의 시간에도 믿음을 지키며, 세상 욕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이 명확히 선포된다.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영원히 누릴 때이다.

### 하나님의 종이란? / 요나 1:1-2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한다.

하지만, 요나는 민족주의와 선입견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 했다.

학식과 지식, 성공과 명예, 이기주의나 자존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자.

### 하나님의 종이란? / 요나 1:1-2

요나 선지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앓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찾아가 그 곳의 죄악들을 명백히 알려주어 회개하도록 사역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다.

니느웨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이방 민족의 수도였다. 게다가 앓수르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였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도우라고 말씀하셨다.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용납할 수 없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세상 만민을 향한 사랑을 니느웨 사람들이 경험하는 축복에 요나 선지자가 초청을 받았음에도 그는 도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가 심판 대신 왜 기회를 허용받는지 수궁할 수 없었다.

요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때만 순종하려 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한다. 사실, 요나에게 니느웨는 빨리 멸망해야 할 도시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이니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다.** 피조물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많은 믿음의 본을 보인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사람의 지성의 한계를 초월해 순종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믿고 따랐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된다.

민족주의적 편견을 하나님 명령 위에 두었던 요나처럼,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고 있는 판단의 기준, 순종의 조건은 없는가? 학식과 지식, 성공에 대한 열망, 나만, 그리고 우리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주의, 누군가를 향한 잘못된 선입견, 끝까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자존심. 이런 것이 순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자. 내일은 하나님의 뜻에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이유로 충분하다.

##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 삶과 신앙

### “너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그 어떤 것으로 대치할 수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은 즐거운 감정’이라는 상식을 파괴한다. 사랑은 ‘기술’이기에 사랑의 지식과 사랑을 배우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한다.

실상 대부분의 현대인은 사랑이 중요하다고 믿지만 정작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을 넘어, 의지이고 결심이자 신성한 약속이라는 것이 에리히 프롬의 선언이다. 따라서 사랑도 기술을 익히듯이 익히고 배워야 하며, 사랑에로의 배움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배움이라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꽃을 아름답게 키워가는, 물을 주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랑의 과정’이 ‘사랑의 기술’이다. 사랑의 기술이 없는 사랑, 즉 배려와 예의와 희생이 없는 사랑은 구속과 폭력이 될 수 있다.

프롬은 한 미성숙한 사랑의 대표적인 오류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첫째, 사랑을 ‘사랑하기’가 아니라 ‘사랑받기’로 이해하는 점이다.** 그래서 남자들은 성공하여 돈과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 여성들은 몸치장에 몰두한다. 마치 그것만 갖춰지면 사랑은 절로 굴러온다는 듯이 말이다.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사랑받기 위한 ‘조건’에 목숨 거느라 정작 ‘사랑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랑을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이다.**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인데, 사랑하거나 사랑받을 ‘대상을 만나는 것’이 어려울 뿐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이다. 다시 말해 좋은 사랑의 대상만 만나면 그 사람과 사랑하는 일은 쉽다는 착각이다.

**셋째,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오류이다.** 사랑에 속는 것은 그 강렬한 감정 때문일 것이다. 뜨거운 감정이 있을 때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감정이 희미해질 때는 사랑도 식었다고 생각하는 오류이다.

사랑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과정이 바로 ‘사랑의 의지’이다. 즉, ‘감정의 사랑’을 넘어 ‘책임 있는 사랑’으로 가야 성숙한 사랑이다. 책임 있는 사랑이 바로 의지적인 사랑이다. 사랑은 100 미터 달리기보다 마라톤이다. **한 평생을 희생하며 섬기는 것이다.**

분명 ‘사랑의 설레임’은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때부터는 **사랑의 깊이’를 추구해야 한다.**

약속이 있는 사랑, 배려하고 희생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랑의 의지가 바로 사랑의 깊이이다.

그렇다면 제일 좋은 사랑의 모델이 무엇일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 있다.  
하나님은 사랑할만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원수가 된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롬 5:8).

뿐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마치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죄에 빠진 우리를 포기하고 새롭게 창조하면 되는데,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마침내는 아들 예수까지 보내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했다.  
마치 “너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사랑하신 것이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의 의지와 책임으로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이 세상에서 수없이 흩날리고 있는 사랑의 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약속이 여기 있다. 우리가 배워가야 할 사랑의 샘플이 여기 있다. 사랑은 계속 배워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한다.



이정하 작가

진정한 깨달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많은 말씀 양육을 받습니다. 예배로, 묵상으로, 제자훈련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많은 관계들속에서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 ‘말씀에 순종하는 나’, ‘이웃을 사랑하는 나’ 그리고 그 깨달음은 삶으로 나타날 때에 비로소 ‘깨달음’이 됩니다.



권마서 5차 82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자 하시니 우리가 그 사랑을 응답하여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http://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